

어느 작고작가가 꿈꿨던 '이상향의 세계'

‘고화흠, 비로소 나의 백안을 찾아’

전남도립미술관, 내달 26일까지 전남 출신 작고 작가 발굴 프로젝트 ‘백안’ 시리즈 유화·수채화 등 선배

어느 작고 작가가 꿈꿨던 이상향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회가 마련됐다. 1950년대부터 한국의 수채화단을 이끈 고화흠 작가의 일생이 담긴 작품들이다. 구상, 반추상, 완전한 추상으로 넘어가는 고화흠 작가의 작품세계를 전시장에 담아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3월26일까지 6, 9전시장에서 ‘고화흠, 이제야 비로소 나의 백안을 찾아’를 열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 지역의 작고 작가를 발굴하고 연구해 그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도 작고 작가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전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백안’은 고작가가 1970년 이후부터 집중했던 시리즈 작품의 제목이다. 1970년대 이



고화흠 작 백안90/1990/캔버스에 유채/162x133cm.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후부터 그의 유화 대부분을 이루는 ‘백안’ 시리즈는 은백색의 물결과 바다 표면에서 일렁이는 그림자에서 나온 서정적인 색채를 특징으로 한다.

전시의 부제목인 ‘이제야 비로소 나의 백안을 찾아’는 고작가가 원광대학교



고화흠 작가와 그의 부인 김인숙 여사의 합작품.

미술대학교수로서 정년을 마치로 200자 원고지에 손수 쓴 ‘백안기’에서 따온 것이다. 그는 ‘백안기’를 통해 ‘퇴임 이후 나는 한편으로는 섭섭하면서도 또 한 곳 마음이 설레었다. 그 설레임은 아마도 이제야 비로소 나의 백안을 찾아, 그 진실을 찾아 흥분하게 여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으리라...’고 고백했다.

직역하면 하얀 언덕이라는 뜻의 백안은 사전에 있는 단어가 아닌 고작가가 장안한 것으로, 그가 머릿속에 그려온 이상향을 나타낸다. 백안이 가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언젠가 가뵈야 할 그리움의 언덕, 허전한 마음속에 묻어두고 다가올 진실을 기다리는 빈자리라는 그의 표현에서 작업에 대한 그의 애정과 낭만이 묻어난다.

고화흠 작가는 1980년대 한국에서 수채화를 통한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에 힘썼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수채화 작품들도 엿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고작가는 섬유예술을 전공한 부인 김인숙 여사와도 예술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지였다. 실제로 김인숙의 지수 작품 중에는 고화흠이 밑그림을 그린 것들이 다수 있으며 이 작품들도 함께 공개됐다.

백안 시리즈는 고화흠 작가의 주요 작품이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전시된 ‘백안 90’은 제5회 아시아국제미술전람회에 출품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90년에 제작한 만큼 이미 완전한 추상의 경지에 이른 작품으로 캔버스 위에 물감의 물성이 빛살무리 형태로 드러난다. 전시에서는

단 한 작품 남아있는 자화상부터 여인 누드화, 생전 활동 영상까지 두루 관람할 수 있다.

고화흠 전시회를 준비한 이연우 전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일반적으로 연대기 순으로 나열되던 작가 회고전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부인의 예술적 조력자이자 동지로 살았던 인간 고화흠의 다양한 면모를 들여다보고자 했다”며 “고화흠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꿰어 이뤄진 이번 전시가 관람객들에게도 백안을 찾아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 출신의 고화흠 작가는 전주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의 녹음사화학 회화과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귀국 이후 목포에서 교직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원광대학교미술대학 학장으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83년 전주에서 ‘한국수채신작파’를 창립하고 수채화를 통해 미술문화 저변 확대를 꿈꿨다. 1988년 미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으며 1999년 77세 나이로 타계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여수시 달빛갤러리, 임영기 사진전

여수 고소동 달빛갤러리에서 3월19일까지 임영기 사진전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바다’를 개최한다.

여수시는 지역 예술인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공모로 8개 팀을 선정하고 올해 처음으로 임영기 사진전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임영기 작가는 ‘인간의 무의식 속 질서를 모색해 자신에 다다른 여정’을 보여주는 추상사진 2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들이 개개인의 내면을 탐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창작활동을 격려하고 여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달



달빛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달빛갤러리 관람은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여수=이경기 기자

K-콘텐츠 인재양성 지원

문체부, 운영기관 37곳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미래 K-콘텐츠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운영기관을 37곳 모집하는 등 총 15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사업은 109억원을 지원하는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과 41억원이 편성된 ‘콘텐츠 원 캠퍼스 구축운영 사업’으로 나뉜다.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 12년차를 맞았다. 콘텐츠 분야별 전문가(멘토)와 예비 창작자(멘티)를 연결해 맞춤형 도제식 멘토링을 진행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문지원 작가, 애니메이션 ‘태일이’의 홍준표 감독

도 이 사업에 멘티로 참여한 바 있다.

창작 분야 멘토링 기획·운영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을 오는 3월2일까지 모집한다. 분야별 총 16개 내외 플랫폼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당 최대 5억4000만원의 지원금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는 배리어프리 프로젝트의 멘토링을 구성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콘텐츠산업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했다.

콘진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 400명까지 육성한다는 목표다.

또 가수료생의 사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우수 프로젝트의 사업화를 지원하

기 위해 총 5개 플랫폼기관을 △영상·스토리 △음악 △공연 △만화 △게임 등 분야별로 선정해 기관당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3월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콘텐츠 원 캠퍼스 구축운영 사업은 산학 협력의 교과운영과 현장실습을 진행한다. 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진흥원(광역)·기업·연구기관 등이 협력하는 총 16개 내외 컨소시엄을 통해 총 41억원을 지원한다.

집약형은 10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각 최대 1억9000만원, 확산형은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각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 집약형과 확산형 모두 3월7일까지 접수 받는다. 확산형은 지난해 대비 지원금이 50% 상승했다. 콘텐츠 인재양성 지원사업설명회는 오는 23일에 서울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뉴스스

‘화이트데이’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에 빠져볼까

광주시향 정기연주회 3월14일 전남대 민주마루 라보엠·나비부인 등 선배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오는 3월14일 오후 7시30분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공연장에서 370회 정기연주회 ‘White Day’를 개최한다.

공연은 예술감독 홍석원의 지휘로 진행되며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나비부인’, ‘수녀 안젤리카’와 슈트라우스의 ‘돈 후안’,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등을 감상할 수 있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오페라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러브신으로 꼽을 수 있는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의 1막 피날레와 ‘라보엠’, ‘토스카’와 함께 푸치니의 3대 걸작으로 꼽히는 오페라 ‘나비부

인’의 사랑의 이중창이다. 소프라노 손지혜와 테너 국윤종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오페라 아리아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상적인 여인을 찾아 헤매는 돈 후안의 희망과 좌절, 영웅적 승리가 펼쳐지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돈 후안’과 서정적이면서도 표현력이 풍부한 낭만적인 관현악의 걸작인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으로 연주회의 막을 내린다.

지휘는 홍석원 예술감독이 맡는다. 2021년부터 광주시향과 연을 맺은 그는 광주시향의 도이치그라모폰(DG) 음반 발매와 미국 자매도시 초청공연을 성황리에 마치며 광주시향의 국제적 인지도를 구축해가고 있다.

소프라노 손지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비나스 국제성악콩쿠르, 빌바오 국

제성악콩쿠르 등 권위 있는 국제콩쿠르 수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프랑스 파리, 리모주극장, 룩셈부르크오페라, 스웨덴 말뫼오페라, 스위스 취리히톤 할레, 이탈리아 토리노, 파르마, 볼로냐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 극장에서 연주 활동을 했으며, 2018년부터 독일 도르트문트 극장의 전속 가수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소프라노 손지혜와 호흡을 맞춘 테너 국윤종은 세계 최고 권위의 콩쿠르인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와 프랑스 마르세이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오페라 세계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룬 그는 독일 레겐스부르크 시립 가극장에서 벨리니 오페라 ‘노르마’의 폴리오네 역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후 독일 하노버 극장을 거쳐 다시 비엔나 폭스오페의 간판 주역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동했다.

광주시향은 “사랑과 애정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인

화이트데이에 기억에 남을 연주회를 선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공연은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8세부터 입장 가능하다.

도선인 기자

